



보도시점 2024. 7. 3.(수) 11:00  
7. 4.(목) 조간

배포 2024. 7. 3.(수) 09:00

## '24년 상반기 K-Food<sup>+</sup> 수출 62.1억불 달성(전년비 5.2%↑)

- 라면·쌀가공식품·과자·음료·김치(농식품), 반려동물사료·농약(전·후방산업) 등이 케이 푸드 플러스(K-Food<sup>+</sup>) 성장세 견인
-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규 화물항공사 안전운항 준비 지원(국토부), 부산항 터미널 인근 저장소 확대(해수부), 인도·중남미 등 신규 바이어 발굴(산업부), 수출바우처(중기부) 협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K-Food<sup>+</sup>)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62억 1천만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K-Food)은 47.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세를 보였다.

- \* 케이 푸드 플러스(K-Food<sup>+</sup>):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포함(+)
- \* K-Food<sup>+</sup> 수출액: ('23.6월) 5,905.7백만불 → ('24.6월) 6,211.9(5.2%↑)
- \* 농식품 수출액: ('23.6월) 4,468.3백만불 → ('24.6월) 4,766.4(6.7%↑)
- \* 전·후방산업 수출액: ('23.6월) 1,437.3백만불 → ('24.6월) 1,445.5(0.6%↑)

농식품 상위 수출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이다. ▲미국은 노동시장 안정 및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로 소비 지출이 견조하여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중국 내 소비심리가 천천히 회복되면서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일본은 작년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하여 3위 수출 시장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타 권역별로는 유럽,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전년대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 \* 주요 시장별 수출액(증감률): 미국 736.8백만불(17.0%↑), 중국 702.8(3.1↑), 일본 671.3(△7.0), 아세안 935.7(3.3↑), 유럽 339.8(30.2↑), 중남미 112.7(12.1↑), 중동 155.0(10.7↑), 오세아니아 147.1(14.5↑)등

한편,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류, 음료, 인삼, 김치 등이다.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 라면 590.2백만불(32.3%↑), 과자 354.1(11.4↑), 음료 325.7(9.6↑), 인삼 152.8(1.2↑), 쌀가공식품 136.9(41.4↑), 김치 83.8(4.0↑)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으로, 전년대비 32.3% 증가한 590.2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운맛 라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출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케이(K)-라면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온라인 채널 입점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6월말 누적 수출액 1억불을 각각 돌파하였다. 유럽으로의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상반기 기준 최초로 1억불 이상 수출되었다.

\* 라면 수출액(증감률): 중국 113.8백만불(30.3%↑), 미국 100.1(58.3↑), 유럽 101.7(52.1↑) 등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인삼 수출액은 152.8백만불로 전년대비 1.2% 증가를 기록하였다. 인삼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초 상대적으로 수출이 둔화되었으나, 재외공관 협력 소비자 체험 행사, 중국·미국에서 전문매장 입점 확대 등 꾸준히 인지도를 높인 결과, 6월말, 전년대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 인삼 수출액(증감률): 중국 49.0백만불(△5.7%), 미국 12.2(19.4↑), 아세안 17.5(1.5↑) 등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품목은 쌀가공식품이다.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식품은 상반기 136.9백만불 수출되어 전년대비 41.4% 증가를 기록하였다. 냉동김밥 등 가공밥은 글루텐프리 건강식·간편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 쌀가공식품 수출액(증감률): 미국 78.1백만불(60.7%↑), 베트남 8.0(23.5↑), 유럽 10.9(65.3↑) 등

대표 케이 푸드(K-Food)인 김치 수출액은 상반기 83.8백만불로 전년대비 4.0% 증가를 기록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발효·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유럽에는 상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김치를 선보이고 한국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전년대비 40% 이상 수출이 증가하였다.

\* 김치 수출액(증감률): 미국 24.1(18.9↑), 유럽 12.7(40.3↑), 중동 8.7(30.4↑) 등

농식품 전·후방산업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이다.

\* 주요 품목 수출액(증감률): 펫푸드 79.8백만불(10.3↑), 동물용의약품 110.8(8.2↑), 농약 411.0(109.3%↑)

반려동물사료(펫푸드)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인 79.8백만불을 기록하였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마케팅, 한류 등에 힘입어 신시장(말린, 인니 등) 개척을 통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펫푸드 수출액(증감률): 일본 31.2백만불(9.0%↑), 대만 11.8(14.2↑), 베트남 7.8(6.2↑) 등

동물용의약품은 5월 말까지 8.2% 성장한 110.8백만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부스틴, 백신, 의료기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백신은 파키스탄·알제리 등 신시장에 제품 등록을 확대하는 등 신시장 개척 노력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24.6%↑)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12월, 잠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 부스틴 19.5백만불(29.0%↑), 백신 14.1(24.6↑), 의료기기 23.1(5.6↑) 등

농약은 지난해(103.2%↑)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109.3% 성장한 4억불 이상 수출을 달성하였다. 브라질, 중국, 베트남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약 수출액(증감률): 브라질 83.2백만불(221.8%↑), 중국 54.7(58.6↑), 베트남 53.5(325.4↑) 등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K-Food<sup>+</sup>)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범부처 협의체 운영 결과, 국토교통부는 신선농산물 물류 개선을 위한 김해공항 신규 화물전용 항공사 안전운항 준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물류 비용 경감을 위한 부산항 터미널 인근 임시보관소 공급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남미·인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발굴 협력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대기업이 유통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 사례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첫 사례인 GS리테일과 봉땅은 지난 4월 상생 협약식 체결 후, GS리테일의 몽골·베트남 유통망을 통해 봉땅의 파배기를 수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으로, 8월 이후 수출할 예정이다.

전·후방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외의 스마트팜·농기자재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우대 협업(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외의 협업을 추진한다. 7월말 체결 예정인 「농산업분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수출바우처 등 부처 수출 지원 정책의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신규 협업 방안도 발굴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업계가 경험 많은 해외건설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인과 수출업체들의 수출 대상국 현지에 맞는 제품 다양화, 마케팅 노력이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만나 수출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케이 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지속 성장하여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유력 바이어 발굴 등 신시장 개척, 부처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활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6월말(1.1.~6.30.) 케이 푸드(K-Food) 수출 실적(잠정)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이용직 (044-201-2171)
		담당자	서기관	김경은 (044-201-2172)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한우리 (044-201-2472)



※ 본 통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통계(잠정치) 기준이며 연간 통계 확정 시 일부 정정될 수 있음

□ 주요 품목별

(단위 : 백만불, %)

구분	2023.1.1.~2023.6.30.	2024.1.1.~2024.6.30.	증감률
○ 농림축산식품(A)	4,468.3	4,766.4	6.7
◆ 신선	<b>746.7</b>	<b>730.8</b>	△2.1
- 김치	80.5	83.8	4.0
- 포도	9.0	10.7	18.4
◆ 가공	<b>3,721.6</b>	<b>4,035.5</b>	<b>8.4</b>
- 라면	446.0	590.2	32.3
- 과자류	317.9	354.1	11.4
- 음료	297.2	325.7	9.6
- 쌀가공식품	96.8	136.9	41.4

\* 면세점 수출액은 5월말 기준 실적까지 포함(6월말 실적은 7월말 파악 가능)

□ 주요 시장별

(단위 : 백만불, %)

구분	2023.1.1.~2023.6.30.	2024.1.1.~2024.6.30.	증감률
미국	630.0	736.8	17.0
아세안	905.5	935.7	3.3
유럽(EU·영국)	261.0	339.8	30.2
중국	681.9	702.8	3.1
일본	722.2	671.3	△7.0
GCC	140.1	155.0	10.7